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9권 2호 (2016년 6월)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목 차

모의 통제양식과 모의 적응 및 자녀의 적응	이정옥 · 최해연
어머니의 정서발달관련 신념이 자녀의 부정정서 표현에 대한 반응과 아동의 정서조절에 미치는 영향	신주혜 · 정윤경
ADHD 아동의 화용론적 결함 및 공감능력 부족과 또래관계문제와의 관련성	남공선 · 이영호
2-3세 발달지연 영유아의 발달양상, 양육환경 및 임상적 특징	이경숙 · 정빛나래 · 정석진 · 박진아

발행처 : 한국발달심리학회
발행인 : 정영숙(부산대학교 심리학과)
주 소 :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학로 63번길 2 심리학과 (내)
전 화 : 051-510-2135

인쇄일 : 2016년 6월 15일
발행일 : 2016년 6월 15일
제작처 : 책과공간
(02-725-9371)

편집위원장 : 송현주(연세대학교)

편 집 위 원 : 권미경(U.C Davis) 김은영(순천향대학교) 김혜리(충북대학교) 노수림(충남대학교)
박영신(경북대학교) 이현진(영남대학교) 정윤경(가톨릭대학교) 최유정(Yale University)

심 사 위 원 : 김민희(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 김애순(연세대학교) 김연수(서울대학교) 김은경(단국대학교)
김주희(연세대학교) 노수림(충남대학교) 문혁준(가톨릭대학교) 박영신(경북대학교)
박창호(전북대학교) 서경현(삼육대학교) 성현란(대구가톨릭대학교) 손정락(전북대학교)
송하나(성균관대학교) 송현주(연세대학교) 신나나(이화여자대학교) 신주혜(가톨릭대학교)
양수진(이화여자대학교) 어주경(연세대학교) 옥 정(서울사이버대학교) 유 경(한림대학교)
윤선아(국제대학교) 이기학(연세대학교) 이등귀(연세대학교) 이등형(부산대학교)
이수진(경일대학교) 이유진(가톨릭대학교) 장문선(경북대학교) 장석환(차의과대학교)
장은진(침례신학대학교) 장혜인(성균관대학교) 정영숙(부산대학교) 진미경(숙명여자대학교)
최영은(중앙대학교) 최은실(가톨릭대학교) 현명호(중앙대학교)

한국심리학회지: 발달은 한국발달심리학회의 기관지로서 연 4회 간행되며, 발달심리학 분야의 연구논문, 자료 및 논평을 게재한다. 한국심리학회지: 발달은 일정한 구독료를 받고 배부하며, 한국심리학회에 연회비를 납부한 회원은 한국심리학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구독이 가능하다. 비회원의 구독에 관해서는 편집위원회 사무실로 문의하기 바란다.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published quarterly-annually
by THE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This journal is issued quarterly-annually and carries research articles based on empirical data & theoretical review. Subscription inquiries and manuscript submission should be directed to: Editor,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Department of Psychology, Yonsei University of Korea, Seoul, Korea.

Editor: Hyun-Joo Song(Yonsei University)

Associate Editor: Mee-Kyoung Kwon(U.C Davis)

Hei-Rhee Ghim(Chungbuk National University)

Young-Shin Park(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Yoon-Kyoung Jeong(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Eun-Young Kim(Soonchunhyang University)

Soo-Rim Noh(Chungnam National University)

Hyeon-Jin Lee(Yeungnam University)

You-Jung Choi(Yale University)

한국심리학회지

발 달

제 29 권 제 2 호 / 2016. 6.

모의 통제양식과 모의 적응 및 자녀의 적응

..... 이정옥 · 최해연 / 1

어머니의 정서발달관련 신념이 자녀의 부정정서 표현에 대한 반응과

아동의 정서조절에 미치는 영향

..... 신주혜 · 정윤경 / 21

ADHD 아동의 화용론적 결함 및 공감능력 부족과 또래관계문제와의 관련성

..... 남궁선 · 이영호 / 43

2-3세 발달지연 영유아의 발달양상, 양육환경 및 임상적 특징

..... 이경숙 · 정빛나래 · 정석진 · 박진아 / 63

한국발달심리학회

어머니의 정서발달관련 신념이 자녀의 부정정서 표현에 대한 반응과 아동의 정서조절에 미치는 영향*

신 주 혜

정 윤 경[†]

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자녀의 정서발달에 영향을 주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기저하는 어머니의 정서에 대한 신념을 확인하고자 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만 3~6세 자녀를 둔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정서발달관련 신념(PBACE: Parents' Beliefs about Children's Emotions Questionnaire), 자녀의 부정정서 표현에 대한 반응(CCNES), 아동의 정서조절(ERC)을 포함한 설문지를 실시하였다. 어머니의 정서발달에 대한 신념과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반응, 아동의 정서조절간의 관련성을 확인한 결과, 부정정서 가치와 긍정정서 가치, 중립적 가치, 정서유동성 및 발달가능성, 부모지도 신념은 자녀의 부정정서 표현에 대한 지지적 반응과 높은 정적 관련성을 보인 반면 정서위험, 조롱, 사생활, 조작 신념은 비지지적 반응과 높은 정적 관련성을 보였다. 또한 자녀의 부정정서 표현에 대한 지지적 반응은 자녀의 적응적 정서조절과 정적 관련성을, 비지지적 반응은 자녀의 불안정 조절과 정적 관련성을 나타냈으며, 부정정서 가치와 긍정정서 가치, 정서유동성 및 발달가능성, 부모지도 신념은 자녀의 적응적 정서조절과 정적 관련성을, 정서위험, 조롱, 사생활, 조작 신념은 자녀의 불안정 조절과 정적 관련성을 보였다. 모형분석 결과에서는 긍정정서 가치, 정서위험, 부모지도, 경멸 신념은 어머니의 정서관련 양육행동을 매개로 하여 아동의 정서조절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며, 통제, 정서유동성, 사생활, 조작 신념은 직접적으로 아동의 정서조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주요어 : 정서발달관련 신념, 자녀의 부정정서 표현에 대한 반응, 정서조절

* 본 논문은 2015년도 박사학위 청구논문의 일부임.

† 교신저자: 정윤경, 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지봉로 43

E-mail: benijeong@catholic.ac.kr

부모가 아동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이 커지면서 어머니의 양육행동뿐 아니라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할 때 지향하는 신념이나 사고와 같은 어머니의 인지적 특성(Gottman, Katz, & Hooven, 1997; McGillicuddy-De Lisi & Sigel, 1995)에 주목하기 시작하였다. 어머니가 양육에 대한 어떠한 생각과 신념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자녀를 양육하고 자녀와 상호작용하는 방식이 달라지듯이, 어머니는 자녀가 보이는 정서에 대해서도 고유한 신념과 가치관을 가지며 이는 자녀의 정서발달에 영향을 주게 된다. Gottman과 동료들(Gottman, Katz, & Hooven, 1996; Gottman et al., 1997)은 가족의 정서적 삶에 대한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정서에 관한 생각과 신념이 가지는 중요성을 인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부모들을 면접한 결과, 부정적 정서에 대한 부모의 신념과 행동, 즉 상위-정서 철학(meta-emotion philosophy)이라는 개념을 발견하고 정서 코칭(emotion coaching)과 정서 축소전환(emotion dismissing), 정서 억압(emotion disapproving), 정서 방임(the laissez-faire attitude)이라는 네 가지 유형을 제시하였다.

Eisenberg, Cumberland와 Spinrad(1998)가 정서 사회화의 발견적 모델을 제시한 이후에 자녀의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신념이 정서사회화 과정에 미치는 역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어머니의 정서발달관련 신념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Dunsmore와 Karn(2001)은 정서발달관련 신념을 측정하는 설문지를 개발하여 정서언어(Emotion Language), 발달적 준비(Developmental Belief), 정서적 유대(Emotional bonding), 정서표현의 자제(Emotional reserve) 신념을 발견하였다. 최근 Halberstadt와 그 동료들(2008)도 가치(Value), 통제(Control), 발달과정

(Developmental Processes), 지도(Guidance), 관계(Relational)라는 5가지 신념으로 조직화되는 11개의 하위 신념들을 발견하고, 이러한 정서발달관련 신념이 정서관련 양육행동 및 아동의 정서적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입증하는 연구들을 진행하였다. 국내에서도 외국과 유사한 정서관련 신념들이 발견되고 있는데, 신주혜와 정윤경(2013)는 한국 어머니의 정서발달관련 신념으로 부정정서가치(부정정서는 가치 있다는 신념), 긍정정서가치(긍정정서는 가치 있다는 신념), 정서일뿐(정서는 중립적 가치를 가진다는 신념), 정서위험(모든 정서는 위험하다는 신념), 통제(정서를 통제할 능력이 있다는 신념), 정서유동성(정서는 빠르게 변화한다는 신념), 정서발달가능성(아이들의 정서는 성장하면서 달라진다는 신념), 부모지도(부모가 정서에 대해 지도해야 한다는 신념), 스스로학습(정서에 대한 규칙을 자녀 스스로 배워나갈 수 있다는 신념), 놀림(정서관련 양육 시 놀림이나 비난을 사용해도 된다는 신념), 사생활(자녀가 정서적 사생활을 가질 수 있다는 신념), 조작(정서는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조작행동이라는 신념)이라는 12가지 신념을 확인하였다.

어머니는 정서를 표현하거나 자녀의 정서에 대해 반응을 하거나, 정서관련 사건에 대해서 자녀와 이야기를 나누거나 자녀의 정서경험의 가능성을 감소 혹은 증가시키는 맥락을 선택하는 등의 정서와 관련하여 다양한 양육행동을 보인다(Eisenberg et al., 1998; Fredrickson, 1998). Eisenberg 등(1998)은 자녀의 정서표현에 대해 어머니가 보이는 반응은 정서관련 반응을 직접적으로 사회화할 수 있는 매우 훌륭한 예라고 이야기했으며, 여러 연구자들도(Davies & Cummings, 1994; Dunsmore & Halberstadt,

1997; Eisenberg, Fabes, & Murphy, 1996) 자녀의 정서표현과 조절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며, 정서적 상호작용에 대한 인지적 도식에도 영향을 끼친다고 주장하였다. 그 중에서도 특히 부정적인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에 관심을 두었는데, 이것은 긍정적 정서보다 부정적 정서가 더욱 중요한 조절의 대상으로 정서 사회화에 관한 풍부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Dunn, Brown, & Beardsall, 1991; Fabes, Poulin, Eisenberg, & Madden-Derich, 200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반응을 어머니의 정서관련 양육행동으로 택하였다. 자녀의 부정정서 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은 자녀가 분노, 두려움, 실망감과 같은 부정적 정서를 경험했을 때 어머니가 나타내는 반응을 말하며, 지지적 또는 비지지적인 방식으로 반응할 수 있다. Fabes, Eisenberg와 Bernzwing (1990)는 지지적 반응은 표현격려 반응(expressive encouragement reaction), 정서중심 반응(emotion-focused reaction), 문제중심 반응(problem-focused reaction)으로, 비지지적 반응은 처벌적 반응(punitive reaction), 최소화 반응(minimization reaction), 심리적 스트레스 반응(distress reaction)으로 구분하였다. 다양한 연구들을 통하여 정서발달관련 신념과 부정정서표현에 대한 반응과의 관련성이 입증되었다. 자녀의 분노, 슬픔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를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어머니는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을 격려하는 지지적 반응을 많이 보이고(Wong, Diener, & Isabella, 2008), 적대적이거나 무시하는 비지지적인 반응을 적게 보이는 경향을 나타내었다(Wong, McElwain, & Halberstadt, 2009). 반면에 정서표현에 대해서 부정적인 신념을 가진 어머니는 자녀의 부정

적인 정서 표현을 최소화하고 무시하는 경향을 보였다(Gottman et al., 1996).

아동이 사회에 적응해 나가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적절하고 적응적인 방식으로 정서 반응 및 행동을 조절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많은 발달 이론가들이 이야기 해왔다(Denham et al., 2003; Eisenberg, Spinrad, & Morris, 2002; Halberstadt, Denham, & Dunsmore, 2001; Kopp, 1982). 정서조절은 환경의 요구에 따라 자신의 정서경험과 정서표현을 조절하고 관리·수정하는 능력으로 개인내적인 발달에서나 대인관계에서 요구되는 필수적 요소이다. Gottman과 Katz(1989)는 정서조절을 강력한 부정 및 긍정 정서와 관련된 부적절한 행동을 억제하고 생리적 각성을 진정시키며, 주의를 재조명하고 외부 목표에 따라 행동을 조직화하는 능력이라고 하였다. Thompson(1994)은 정서조절을 하나의 결과이면서 동시에 과정으로 보았는데, 개인이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자신의 정서적 반응을 감찰하고 평가하고 수정하는 외적이며 내적인 과정으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정의는 정서조절은 스트레스가 높은 요구와 정서적 경험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적절하고 적응적이며 유연한 방식으로 반응하는 능력이라는 것을 의미한다(Eisenberg & Morris, 2002; Walden & Smith, 1997). 또한 Shields와 Cicchetti(1997)는 정서조절을 자신의 정서적인 각성을 모니터링하고 조정하는 능력으로 정의하고, 불안정(lability)/부정성(negativity)과 적응적 정서조절(adaptive emotion regulation)의 두 측면으로 구분하였다. 불안정/부정성은 기분의 변화가 심하며 부정정서를 조절하지 못하는 것과 관련되며, 적응적 정서조절은 상황에 적합하도록 자신의 정서를 조절하며,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는

공감능력이나 정서지각능력이 뛰어남을 의미한다. 학령전기는 정서조절 능력의 발달이 시작되는 결정적 시기로(Frick & Morris, 2004),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은 가족환경 내에서의 관찰/모델링, 부모의 훈육, 가족이 가지는 정서적인 분위기 등의 사회화 과정을 통하여 획득될 수 있다(Morris, Silk, Steinberg, Myers, & Robinson, 2007). 자녀가 표현하는 부정 및 긍정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은 자녀의 정서 조절에 영향을 준다(Eisenberg et al., 1998). 자녀가 부정적인 정서를 표현했을 때 어머니가 아동을 위로하고 문제해결을 돕는 것은 어머니가 자녀에게 효과적인 대처전략의 모델링과 지도를 제공하는 것이다. 자녀의 정서에 대해서 어머니가 애정적이고 수용적으로 반응할수록 자녀의 정서조절능력이 높았으며(안라리, 2005; 허애수, 2003), 어머니의 문제중심적 반응은 학령기 자녀의 적극적인 대처반응과 관련이 있었다(Eisenberg et al., 1996). 반대로 자녀가 부정적 정서를 표현할 때 어머니가 비지지적 반응을 보이면, 자녀는 자신의 정서를 숨기고 억제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데(Buck, 1984), 이는 어머니의 비지지적 반응이 정서표현과 처벌을 연합시켜 정서가 유발되는 상황에서 불안을 느끼게 하기 때문이다(Eisenberg et al., 1998). Eisenberg 등(1996)도 어머니가 자녀의 정서표현을 격려하지 않고 처벌하거나 최소화시킬 때, 자녀는 정서표현을 부정적이거나 위협적인 것으로 지각하여 정서의 의미와 이를 다루는 방식을 탐색할 기회를 놓치게 된다고 하였다. 어머니의 비지지적 반응은 학령기 자녀의 부정적인 정서성과 연관이 있었으며, 어머니의 처벌과 최소화반응은 자녀의 높은 수준의 회피 대처반응과 연관을 보였다(Eisenberg et al., 1996). 유치원 자녀를 가진 어

머니에 대한 연구에서도 부모의 처벌적인 반응은 자녀가 정서를 표현하지 못하고 억압하며 상황이나 자신의 정서반응을 다루는 기술은 습득하지 못한 채 각성되어 있게 하였다(Fabes, Leonard, Kupanoff, & Martin, 2001).

부모의 정서발달관련 신념은 자녀와의 상호작용하는 방식에 영향을 주어 자녀의 정서조절과도 연관을 가진다. Gottman 등(1996, 1997)은 정서코칭 철학을 가진 부모는 자녀가 정서에 대한 언어적 명칭을 알도록 하고 정서적 상황에서 문제해결을 하도록 도움으로써 자녀가 정서를 효과적으로 조절하도록 돕는다고 하였다. 유사한 결과들이 여러 연구에서도 증명되었는데, 상위-정서 면접을 통하여 정서코칭 철학을 가진 것으로 분류된 어머니의 자녀는 더 나은 정서조절을 보였으며(Ramsden & Hubbard, 2002), 자녀를 학대하는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자녀의 정서를 수용해주는 정서코칭 철학을 가진 어머니의 자녀는 그렇지 않은 어머니의 자녀에 비하여 더 나은 정서조절 능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Shipman et al., 2007). Halberstadt 등(2008)은 부모의 정서에 대한 가치 신념이 정서표현과 정서 대화에 영향을 주며 또한 자녀의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대처방식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가정하고, 9/11테러를 겪은 아동을 대상으로 이를 증명하였다.

정서발달관련 신념이 양육 및 아동의 정서발달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최근 국내에서도 관련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다. 최혜정, 이동귀(2015)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정서관련 신념과 유아의 정서조절의 관계에서 어머니의 정서표현의 매개효과를 입증하였으나 신념, 가치와 같은 인지적인 요인뿐 아니라 행동이 혼합된 Dunsmore와 Karn(2001)

의 문항을 사용하였다는 한계점을 가진다. 이지은(2014)의 연구에서는 Halberstadt 등(2005)이 개발하고 Parker(2006)가 수정한 자녀정서에 대한 부모의 신념 질문지를 사용하여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였으나 요인분석과 같은 도구에 대한 타당도 분석 없이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정서관련 양육행동 및 유아의 정서조절과의 관련성도 정서지도 신념과의 관계만을 확인하는데 그쳤다.

지금까지의 정서발달관련 신념에 대한 연구(Gottman et al., 1996, 1997; Dunsmore, Her, Halberstadt, & Perez-Rivera, 2009; Halberstadt, Thompson, Parker, & Dunsmore, 2008; Wong et al., 2008, 2009)는 주로 부정정서에 대한 가치, 부모지도 신념에 대한 연구에 중점을 두고 있

다. 다양한 정서발달관련 신념이 확인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몇 정서발달관련 신념에만 연구가 한정되어 있어, 다양한 신념 각각이 양육 및 아동의 정서발달에 미치는 영향력을 명확히 밝히지는 못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은 긍정정서 가치, 통제, 발달과정, 관계 신념이 가지는 중요성을 확인해보고자 12개의 정서발달관련 신념 모두를 포함하였다. 더불어 그간 정서발달관련 신념과 정서관련 양육행동과의 관련성(정윤경, 박혜진, 2012; Cervantes & Seo, 2005; Dunsmore & Karn, 2001; Wong et al., 2008), 정서관련 양육행동과 자녀의 정서조절간의 관련성(안라리, 2005; 허애수, 2003; Denham, 1989; Denham, Mitchell-Copeland, Strandberg, Auerbach, & Blai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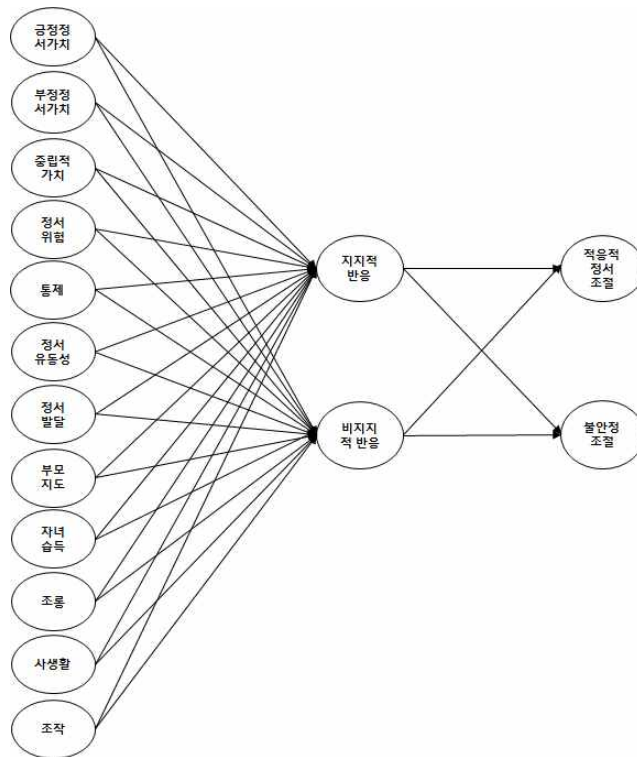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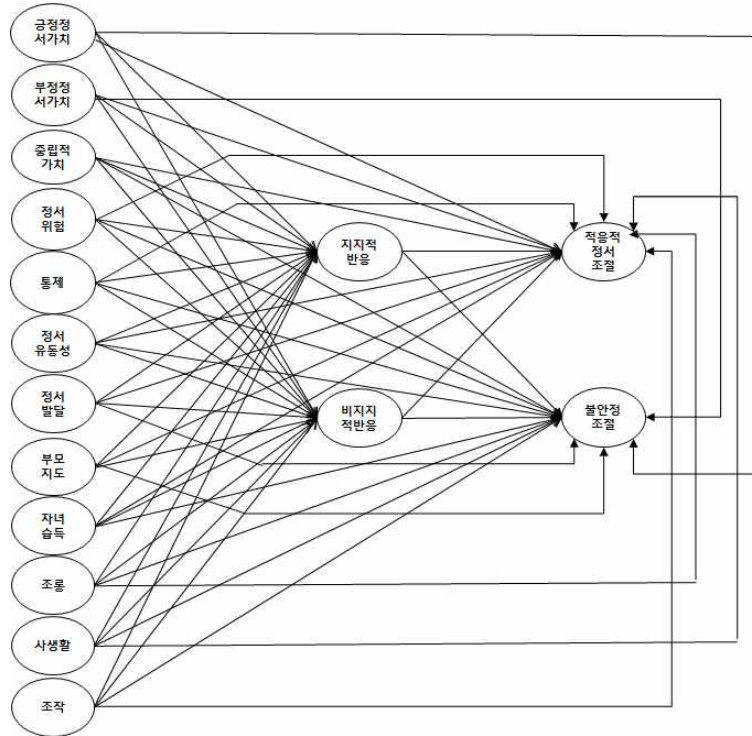


그림 2. 대안모형

1997; Eisenberg et al., 1996; Newland & Crnic, 2011), 상위-정서철학과 자녀의 정서조절의 관련성(Ramsden & Hubbard, 2002; Shipman et al., 2007) 각각에 대한 연구는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정서관련 양육행동이 정서발달관련 신념과 자녀의 정서조절간의 관계를 매개한다는 가정은 상위-정서 철학을 바탕으로 한 연구에서 추측해볼 수는 있으나 실제적으로 다양한 정서발달관련 신념을 대상으로 이를 입증한 연구는 없어, 정서사회화 과정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기는 어려웠다. 이에 본 연구는 Eisenberg 등(1998)의 정서 사회화의 발견적 모델을 기반으로 하여 어머니의 정서발달관련 신념이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거쳐 자녀의 정서발달에 영향을 주는 정서사회화 과정을 경

험적으로 증명하려 한다. 12개의 정서발달관련 신념이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지지적 반응과 비지지적 반응에 영향을 주고 이는 다시 자녀의 적응적 정서조절과 불안정 조절에 영향을 미치는 완전매개 모형을 연구모형으로 설정하였고, 대안모형으로 부분 매개 모형을 설정하였다(그림 1, 2).

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 검증하고자 하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어머니의 정서발달관련 신념이 자녀의 부정적 정서 표현에 대한 반응과 어떠한 관련성을 가지는가?

둘째, 자녀의 부정적 정서 표현에 대한 반응이 아동의 정서조절과 어떠한 관련성을 가지는가?

셋째, 한국 어머니의 정서발달관련 신념이 아동의 정서조절과 어떠한 관련성을 가지는가?

넷째, 한국 어머니의 정서발달관련 신념이 자녀의 부정적 정서 표현에 대한 반응을 거쳐 아동의 정서조절에 영향을 주는가?

높은 것으로 평가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12개 하위 요인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부정정서 가치 .82, 긍정정서 가치 .88, 중립적 가치 .86, 정서위험 .78, 통제 .91, 정서유동성 .81, 정서발달 가능성 .86, 부모지도 .92, 자녀습득 .83, 조류 .84, 사생활 .86, 조작 .85 이었다.

방 법

연구대상

서울과 경기도에 소재한 유치원에 다니는 3~6세 자녀를 둔 어머니 3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어머니의 평균 연령은 34.7세로 연령대는 24세~46세였으며 학력은 고졸이 115명(32.6%), 대졸 203명(57.5%), 대학원졸 26명(7.4%), 기타가 9명(2.5%)이었다.

측정 도구

정서발달관련 신념 척도

자녀의 정서에 대한 부모의 반응을 측정하기 위해 Halberstadt 등(2008)이 개발하고 신주혜와 정윤경(2013)이 번안하고 수정한 PBACE(Parents' Beliefs about Children's Emotions Questionnaire)를 사용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하여 확인된 12개의 하위 요인으로 구성된 총 113문항의 척도로, 정서의 가치(35문항), 통제(18문항), 발달과정(15문항), 지도(17문항), 관계 척도(28문항)로 이루어져있으며 내용은 표 1에 제시하였다. Likert식 6점 척도(1=전혀 아니다, 6=매우 그렇다)로 구성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의 정서에 대한 문장에 대해 동의하는 정도가

자녀의 부정정서 표현에 대한 반응양식 척도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해 부모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측정하기 위해 CCNES(Coping with Children's Negative Emotions Scale)를 사용하였다. CCNES는 자녀가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하게 되는 상황을 제시하고 각 상황에 대한 부모의 반응을 측정하는 자기보고식 질문지로, Fabes 등(1990)이 개발하고 김희정(1995)이 번안·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부모의 반응유형은 크게 지지적 반응과 비지지적 반응 2개의 범주로 나누어진다. 지지적 반응은 표현적려 반응, 정서중심적 반응, 문제중심적 반응의 3개의 하위 범주로 구분되며, 비지지적 반응은 최소화 반응, 처벌적 반응, 심리적 스트레스 반응의 3개의 하위 범주로 구분된다. 총 6개의 하위 범주는 각각 12문항씩 총 72문항으로, Likert식 7점 척도(1=전혀 아니다, 7=매우 그렇다)로 구성되어 있다. 박혜진(2011)의 연구에서는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83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도 .83 이었다.

정서조절 질문지

자녀의 정서조절을 측정하기 위해 Shields와 Cicchetti(1997)에 의해 개발된 The Emotion Regulation Checklist(ERC)를 여은진(2009)이 번안

표 1. 정서발달관련 신념의 내용¹⁾

가치	부정정서 가치	부정적 정서는 가치가 있다는 신념
	긍정정서 가치	긍정적 정서는 가치가 있다는 신념
	중립적 가치	정서는 하나의 선택일 뿐이라는 신념
	정서위험	모든 정서는 위험하다는 신념
발달 과정	통제	아동이 정서를 통제할 능력을 가졌는지에 대한 신념
	정서유동성	정서가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것인지 지속적인 것인지에 대한 신념
	정서발달 가능성	정서가 발달에 의해 변화 가능한 특성인지 아니면 기질적으로 고착된 것인 지에 대한 신념
지도	부모지도	자녀의 정서를 지도하는 책임자가 부모라는 신념
	자녀습득	자녀 스스로 정서에 대해서 배워간다는 신념
관계	조롱	정서관련 양육 시 놀림이나 비난을 사용해도 되는지에 대한 신념
	사생활	자녀가 정서적 사생활을 가질 권리를 가지는지에 대한 신념
	조작	아동의 정서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조작행동인지에 대한 신념

한 척도를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Likert식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고 불안정/부정성(15문항)과 적응적 정서조절(9문항) 두 개의 하위 영역으로 이루어져있다. 불안정/부정성의 점수가 높을수록 분노가 유발되거나 공격적 상황에서 자신의 기분변화에 따라 정서적 강도를 적절히 조절하지 못함을 의미하며, “폭발하듯이 화를 내며 쉽게 짜증내는 경향이 있다”, “충동적으로 행동한다”과 같은 문항들이 포함된다. 본 연구에서는 불안정 조절이라는 용어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적응적 정서조절은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의 마음을 조절하고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는 능력이 높

음을 의미하며 “명랑한 아이이다”, “정서적 스트레스를 받은 후에도 시무룩하거나 슬픈 상태로 있지 않고 빨리 회복한다”와 같은 문항들이 포함된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 (Cronbach's α)는 .87이었다.

분석방법

이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Window 18.0과 Amos 18.0과 Amos 20.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은 첫째, 각 변인간의 관련성을 보기 위하여 변인들간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어머니의 정서발달관련 신념과 자녀의 정서조절의 관계에서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반응의 매개효과를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모형의 적합도 평가를 위해 χ^2 와 적합도 지수인 TLI (Tucker-Lewis Index), CFI(Comparative Fit Index),

1) 신주혜와 정윤경(2013)의 신념 중 “정서일뿐”은 “중립적 가치”로, “스스로 학습”은 “자녀습득”로, “경멸”은 “조롱”으로 변경하는 것이 신념의 내용을 더 정확히 표현한다고 판단되어 본 논문에서는 변경된 용어로 사용하였다.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을 사용하였다. 연구모형과 대안모형을 차례로 검증한 후, 모형들을 비교하여 변인들 간의 관계를 가장 잘 나타내는 최종 모형을 선정하였고, 간접효과의 유의성 검증을 위하여 Sobel test을 실시하였다.

결 과

어머니의 정서발달관련 신념,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반응 및 아동의 정서조절간의 관계

어머니의 정서발달관련 신념과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반응과의 관계

12개의 정서발달관련 신념의 하위요인들과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반응 간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는 표 2에 제시하였다. 그 결과를 보면, 부정정서 가치 신념은 정서표현 격려($r=.31, p<.01$), 정서중심적 반응($r=.12, p<.05$) 문제중심적 반응($r=.14, p<.05$)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최소화 반응($r=-.11, p<.05$)과는 부적 상관을 보였으며, 긍정정서 가치 신념은 정서표현 격려($r=.25, p<.01$), 정서중심적 반응($r=.29, p<.01$), 문제중심적 반응($r=.30, p<.01$)과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처벌 반응($r=-.13, p<.05$)과는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중립적 가치 신념은 정서표현 격려($r=.17, p<.01$), 문제중심적 반응($r=.13, p<.05$), 최소화 반응($r=.13, p<.05$)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그에 반하여 정서위험 신념은 표현격려($r=-.16, p<.01$)와는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처벌($r=.33, p<.01$), 최소화($r=.34, p<.01$), 스트레스($r=.25, p<.01$)와 같은 비지지적 반응과는 유

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통제 신념은 처벌 반응($r=.24, p<.01$)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정서유동성 신념은 표현격려($r=.12, p<.05$), 정서중심적 반응($r=.22, p<.01$), 문제중심적 반응($r=.25, p<.01$), 최소화 반응($r=.11, p<.05$)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고, 정서발달 가능성 신념은 정서표현 격려($r=.23, p<.01$), 정서중심적 반응($r=.28, p<.01$), 문제중심적 반응($r=.32, p<.01$)과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처벌($r=-.23, p<.01$), 스트레스 반응($r=-.11, p<.05$)과는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부모지도 신념은 정서표현 격려($r=.27, p<.01$), 정서중심적 반응($r=.36, p<.01$), 문제중심적 반응($r=.34, p<.01$)과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처벌 반응($r=-.21, p<.01$)과는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였으며 자녀습득 신념은 처벌 반응($r=.28, p<.01$)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조롱 신념은 정서중심적 반응($r=-.16, p<.01$), 문제중심적 반응($r=-.13, p<.05$)과는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처벌($r=.38, p<.01$), 최소화($r=.15, p<.01$), 스트레스 반응($r=.19, p<.01$)과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사생활 신념은 정서중심적($r=-.16, p<.01$), 문제중심적 반응($r=-.11, p<.05$), 최소화 반응($r=-.13, p<.05$)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조작 신념은 정서표현 격려($r=-.12, p<.05$), 문제중심적 반응($r=-.11, p<.05$)과는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처벌($r=.26, p<.01$), 최소화($r=.17, p<.01$), 스트레스 반응($r=.14, p<.05$)과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어머니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반응과 아동의 정서조절의 관계

표 2에 제시된 어머니의 정서관련 양육행동과 자녀의 정서조절간의 상관관계를 보면, 정

표 2. 정서발달관련 신념, 정서관련 양육행동 및 아동의 정서조절 간의 상관

변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1. 부정정서가치	-																				
2. 긍정정서가치	.21 ^{***}	-																			
3. 중립적 가치	.29 ^{***}	.12 [*]	-																		
4. 정서위험	-.42 ^{***}	-.15 [*]	-.02	-																	
5. 통제	.11	-.35 ^{***}	.08	.19 ^{**}	-																
6. 정서유동성	.29 ^{***}	.44 ^{***}	.17 ^{***}	-.09	-.28 ^{***}	-															
7. 정서발달가능성	.25 ^{***}	.55 ^{***}	.02	-.30 ^{***}	-.34 ^{***}	.63 ^{***}	-														
8. 부모지도	.19 ^{**}	.52 ^{***}	.10	-.06	-.28 ^{***}	.49 ^{***}	.49 ^{***}	-													
9. 자녀습득	.06	-.19 ^{**}	.07	.29 ^{***}	.41 ^{***}	-.20 ^{**}	-.28 ^{***}	-.36 ^{***}	-												
10. 조통	-.05	-.48 ^{***}	.04	.42 ^{***}	.35 ^{***}	-.24 ^{**}	-.40 ^{***}	-.40 ^{***}	.38 ^{***}	-											
11. 사생활	.28 ^{***}	-.17 ^{**}	.10	-.25 ^{***}	.12 [*]	-.08	-.13 [*]	-.37 ^{***}	.08	.12 [*]	-										
12. 조작	.04	-.09	.06	.33 ^{***}	.24 ^{***}	.07	-.14 [*]	-.04	.21 ^{***}	.31 ^{***}	.06	-									
13. 정서표현격려	.31 ^{***}	.25 ^{***}	.17 ^{***}	-.16 ^{**}	-.01	.12 [*]	.23 ^{**}	.27 ^{**}	-.04	-.10	-.02	-.12 [*]	-								
14. 정서중심적	.12 [*]	.29 ^{***}	.09	-.01	-.10	.22 ^{**}	.28 ^{**}	.36 ^{**}	-.03	-.16 ^{**}	-.16 ^{**}	-.02	.49 ^{***}	-							
15. 문제중심적	.14 [*]	.30 ^{***}	.15 [*]	-.09	-.09	.25 ^{**}	.32 ^{**}	.34 ^{**}	-.04	-.13 [*]	-.11 [*]	-.11 [*]	.53 ^{***}	.78 ^{***}	-						
16. 처벌	-.01	-.13 [*]	.09	.33 ^{***}	.24 ^{***}	-.03	-.23 ^{***}	-.21 ^{***}	.28 ^{***}	.38 ^{***}	-.01	.26 ^{**}	-.24 ^{***}	-.28 ^{***}	-.26 ^{***}	-					
17. 귀소화	-.11 [*]	.10	.13 [*]	.34 ^{***}	-.06	.11 [*]	-.02	.04	.10	.15 ^{**}	-.13 [*]	.17 ^{**}	-.06	.17 ^{**}	.20 ^{***}	.38 ^{***}	-				
18. 스트레스	.02	-.02	.04	.25 ^{***}	.05	.07	-.11 [*]	-.08	.10	.19 ^{**}	.01	.14 [*]	-.17 ^{***}	-.31 ^{***}	-.28 ^{***}	.63 ^{***}	.19 ^{**}	-			
19. 정서조절	.15 ^{**}	.20 ^{***}	.08	-.05	.03	.22 ^{**}	.25 ^{**}	.16 ^{**}	-.03	-.20 ^{**}	-.12 [*]	-.11 [*]	.26 ^{**}	.30 ^{**}	.27 ^{**}	-.17 ^{**}	.01	-.20 ^{**}	-		
20. 불안정 조절	-.01	-.16 ^{**}	.03	.23 ^{**}	.03	-.08	-.22 ^{**}	-.11 [*]	.09	.31 ^{**}	.12 [*]	.33 ^{***}	-.18 ^{**}	-.17 ^{**}	-.21 ^{**}	.40 ^{**}	.11	.32 ^{**}	-.41 ^{**}	-	

*** $p < .001$, ** $p < .01$, * $p < .05$

서표현 격려($r=.26, p<.01$), 정서중심적($r=.30, p<.01$), 문제중심적 반응($r=.27, p<.01$)은 자녀의 적응적 정서조절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처벌($r=-.17, p<.01$), 스트레스 반응($r=-.20, p<.01$)과는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또한 불안정 조절과의 관계를 보면 정서표현 격려($r=-.18, p<.01$), 정서중심적($r=-.17, p<.01$), 문제중심적 반응($r=-.21, p<.01$)은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처벌($r=.40, p<.01$), 스트레스 반응($r=.32, p<.01$)은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어머니의 정서발달관련 신념과 아동의 정서조절간의 관계

표 2에 제시된 어머니의 정서발달관련 신념과 정서조절간의 상관분석 결과를 보면, 부정정서 가치($r=.15, p<.01$), 긍정정서 가치($r=.20, p<.01$), 정서유동성($r=.22, p<.01$), 정서발달 가능성($r=.25, p<.01$), 부모지도($r=.16, p<.01$)와 자녀의 적응적 정서조절은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조롱($r=-.20, p<.01$), 정서사생활($r=-.12, p<.05$), 조작($r=-.11, p<.05$) 신념과는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한편 불안정 조절과의 결과를 보면, 긍정정서 가치($r=-.16, p<.01$), 정서발달 가능성($r=-.22, p<.01$), 부모지도($r=-.11, p<.05$)와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를, 정서위험($r=.23, p<.01$), 조롱($r=.31, p<.01$), 정서사생활($r=.12, p<.05$), 조작($r=.33, p<.01$) 신념과는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어머니의 정서발달관련 신념과 아동의 정서조절간의 관계에서 부정적 정서 표현에 대한 반응의 매개효과

어머니의 정서발달관련 신념이 부정적 정서 표현에 대한 지지적 반응 및 비지지적 반응을 매개로 자녀의 정서조절에 영향을 미치는 모형에 대한 적합성을 확인하여 표 3에 제시하였다. 연구모형과 대안모형을 비교한 것을 살펴보면, 연구모형은 RMSEA 값이 .042로 대안모형(.041)보다 크며, TLI 값은 .895로 대안모형(.900)보다 작고 CFI 값도 .909로 대안모형(.916)보다 작아, 대안모형이 더 좋은 적합도 지수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적합도 지수의 차이가 크지 않은 관계로 χ^2 차이검증을 통해 보다 적합한 모형을 선정하기로 하였다. 연구모형과 대안모형의 χ^2 차이검증을 실시한 결과, 자유도 차이가 24였다. 자유도가 24일 때 유의수준 .05에서의 χ^2 의 임계치는 36.41이므로 두 모형의 $\Delta\chi^2$ 값이 36.41보다 커야 χ^2 값의 차이가 유의하다고 할 수 있다. 연구모형과 대안모형의 검증 결과, $\Delta\chi^2$ 값이 82.41로 대안모형이 임계치 이상의 χ^2 값 감소를 나타내어 모형의 적합도가 개선되었다. 즉, 정서발달관련 신념과 자녀의 정서조절간의 직접적인 경로를 추가한 대안모형이 모형의 적합도를 향상시켜 연구모형에 비하여 좀 더 우수한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대안모형을 최종모형으로 선정하였다.

표 3. 모형의 적합도 비교

	χ^2	df	TLI	CFI	RMSEA (90% 신뢰구간)
연구모형	2089.03	1281	.895	.909	.042(.039-.046)
대안모형	2006.63	1257	.900	.916	.041(.038-.044)

최종모형으로 선정된 대안모형의 경로계수는 표 4와 그림 3에 나타난 바와 같다. 최종 모형의 변인 간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면, 어머니가 부모지도($\beta=0.27, p<.01$)와 긍정정서가치($\beta=0.19, p<.05$) 신념이 높을수록 지지적 양육행동을 보이며, 조롱($\beta=0.26, p<.001$)과 정서위험($\beta=0.24, p<.01$) 신념이 높을수록 비지지적 양육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작 신념이 높을수록 지지적 반응($\beta = -0.17, p<.01$)과 적응적 정서조절($\beta=-0.17, p<.05$)은 낮아지고 불안정 조절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0.36, p<.001$). 지지적 양육 행동은 적응적 정서조절을 예언하고($\beta=0.19, p<.01$), 비지지적 양육행동은 더 적은 적응적 정서조절($\beta=-0.17, p<.05$)과 더 많은 불안정

조절($\beta=0.37, p<.001$)을 예언하는 것으로 보아, 어머니의 지지적인 양육행동이 자녀의 정서조절에 긍정적인 영향을, 비지지적인 양육행동은 자녀의 정서조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정서 유동성($\beta =0.26, p<.01$)과 통제($\beta=0.23, p<.01$) 신념이 높을수록 적응적 정서조절을 예언하고, 정서유동성($\beta=-0.21, p<.05$)과 통제($\beta=-0.25, p<.001$) 신념이 높을수록 낮은 불안정 조절을 예언하였다. 마지막으로 정서사생활 신념이 높을수록 불안정 조절을 예언하였다($\beta=0.18, p<.01$).

최종 모형의 간접효과는 표 5에 제시하였다. 최종모형에서 어머니의 정서발달관련 신념과 자녀의 정서조절간의 관계에 작용하는

표 4. 최종모형의 경로계수

	경로	표준화계수	비표준화계수	표준오차	t
부모지도	→ 지지적 반응	0.27	0.72	0.23	3.04**
조작	→ 지지적 반응	-0.17	-0.35	0.13	-2.60**
긍정정서가치	→ 지지적 반응	0.19	0.64	0.28	2.21*
조롱	→ 비지지적 반응	0.26	1.06	0.31	3.39***
정서위험	→ 비지지적 반응	0.24	0.91	0.34	2.61**
비지지적 반응	→ 적응적 정서조절	-0.17	-0.02	0.01	-2.15*
비지지적 반응	→ 불안정 조절	0.37	0.10	0.02	4.60***
지지적 반응	→ 적응적 정서조절	0.19	0.04	0.01	2.34**
조작	→ 적응적 정서조절	-0.17	-0.08	0.03	-2.33*
정서유동성	→ 적응적 정서조절	0.26	0.42	0.16	2.62**
사생활	→ 불안정 조절	0.18	0.16	0.06	2.64**
조작	→ 불안정 조절	0.36	0.35	0.07	5.31***
정서유동성	→ 불안정 조절	-0.21	-0.73	0.31	-2.36*
통제	→ 불안정 조절	-0.25	-0.33	0.09	-3.48***
통제	→ 적응적 정서조절	0.23	0.14	0.05	2.97**

*** $p <.001$, ** $p <.01$, * $p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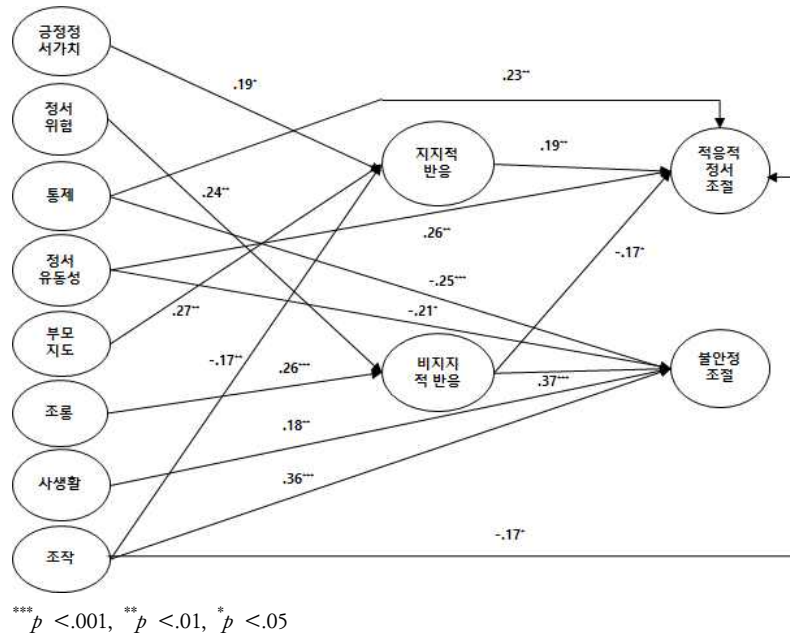


그림 3. 최종모형

표 5. 최종모형의 간접효과

		경로	간접효과
긍정정서가치	→	지지적 반응 → 적응적 정서조절	.016
정서위험	→	비지지적 반응 → 적응적 정서조절	-.047
정서위험	→	비지지적 반응 → 불안정 조절	.087
부모지도	→	지지적 반응 → 적응적 정서조절	.076
조롱	→	비지지적 반응 → 적응적 정서조절	-.026
조롱	→	비지지적 반응 → 불안정 조절	.094
조작	→	지지적 반응 → 적응적 정서조절	-.042

어머니의 정서관련 양육행동의 간접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MacKinnon, Warsi와 Dwyer (1995)의 Sobel test을 실시하였다.

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 긍정정서가치→지지적 반응→적응적 정서조절 경로($z=1.98$, $p<.05$), 정서위험→비지지적 반응→적응적 정

서조절 경로($z=-2.24$, $p<.05$), 정서위험→비지지적 반응→불안정 조절 경로($z=2.37$, $p<.05$), 부모지도→지지적 반응→적응적 정서조절 경로($z=2.46$, $p<.05$), 조롱→비지지적 반응→적응적 정서조절 경로($z=-1.97$, $p<.05$), 조롱→비지지적 반응→불안정 조절 경로($z=2.75$, $p<.01$),

조작→지지적 반응→적응적 정서조절 경로 ($z=-2.25, p<.05$), 모두 간접효과가 유의미함을 확인하였다.

논 의

본 연구는 한국 어머니의 12가지 정서발달 관련 신념들이 정서관련 양육행동 및 아동의 정서조절과 어떤 관계를 갖는지 살펴보고, 정서발달관련 신념이 정서관련 양육행동을 거쳐 아동의 정서조절에 영향을 주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어머니의 정서발달관련 신념과 부정적 정서 표현에 대한 반응과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결과는 상위-정서 철학의 특징에 근거한 주장과 일치하였다(Gottman et al., 1996, 1997). 부정정서 가치, 긍정정서 가치, 독립적 가치와 같은 가치관련 신념과 부모지도 신념, 정서유동성과 정서발달 가능성과 같은 발달과정 신념이 높은 어머니는 높은 수준의 지지적 반응과 낮은 수준의 비지지적 반응을 보였다. 반면에 어머니가 정서위험 신념, 통제 신념, 조롱, 사생활, 조작과 같은 관계 신념이 높을수록 낮은 수준의 지지적 반응과 높은 수준의 비지지적 반응을 보였다.

자녀가 보이는 부정정서 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과 자녀의 정서조절 간의 관련성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어머니가 자녀의 부정정서 표현에 대해 지지적 반응을 많이 할수록 자녀는 높은 수준의 적응적 정서조절과 낮은 수준의 불안정 조절을 보인 반면, 어머니가 비지지적 반응을 많이 할수록 자녀는 낮은 수준의 적응적 정서조절과 높은 수준의 불안정 조절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정서관

련 양육행동이 자녀의 정서조절에 영향을 준다는 기존의 선행 연구들(안라리, 2005; 허애수, 2003; Eisenberg et al., 1996, 2003)의 결과와 일치한다.

정서발달관련 신념과 자녀의 정서조절간의 관련성에 대한 결과를 보면, 높은 수준의 부정정서 가치, 긍정정서 가치와 같은 가치관련 신념, 정서유동성, 정서발달 가능성과 같은 발달과정 신념, 부모지도 신념을 가진 어머니는 높은 수준의 적응적 정서조절과 낮은 수준의 불안정 조절을 나타냈고, 정서위험 신념과 조롱, 사생활, 조작과 같은 관계 신념이 높은 어머니는 높은 수준의 불안정 조절과 낮은 수준의 적응적 정서조절을 나타냈다.

어머니의 정서발달관련 신념이 부정정서 표현에 대한 반응을 거쳐 아동의 정서조절에 영향을 주는 매개모형을 분석한 결과, 정서발달관련 신념이 양육행동을 거쳐 아동의 정서조절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기도 하고, 정서발달관련 신념이 직접적으로 아동의 정서조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먼저, 정서위험 신념 수준이 높은 어머니는 자녀의 부정정서 표현에 비지지적으로 반응하게 되고 이는 자녀의 적응적 정서조절을 억제하고 불안정 조절을 이끄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지도 신념 수준이 높은 어머니는 자녀의 정서표현에 지지적으로 반응함으로써 자녀의 적응적 정서조절에 영향을 미쳤다. 이는 정서에 대한 수용과 정서지도를 중요한 두 가지 차원으로 생각하는 상위-정서이론과 일치하는 결과로, 정서코칭 철학을 가진 어머니는 자녀가 정서에 대한 언어적 명칭을 알도록 돕고 정서적 상황에서 문제해결을 도움으로써 자녀가 정서를 효과적으로 조절하도록 돕는 주장(Gottman et al., 1996, 1997; Hooven,

Gottman, & Katz, 1995)을 입증한 결과이다.

긍정정서 가치 신념이 높은 어머니는 자녀의 부정정서 표현에 대해 지지적 반응을 하게 되고 이는 자녀의 적응적 정서조절을 이끄는 것으로 나타났다. 긍정정서에 대해서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신념이 긍정정서 표현이 아닌 부정정서 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지지적 반응에 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결과가 흥미로웠다. 긍정 정서는 부정적 정서를 느낄 때 심혈관 활성화도를 기본 수준으로 빠르게 회복시키는 등 스트레스로 인한 역기능적인 상태를 회복시키는 기능이 있다(Fredrickson & Levenson, 1998; Fredrickson, Mancuso, Branigan, & Tugade, 2000; 최해연, 2012에서 재인용). 따라서 긍정정서 가치 신념이 높은 어머니는 부정정서 표현에 의해 발생하는 스트레스를 낮추고, 부정정서 표현을 격려하고 정서조절을 돕는 가족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적응적 정서조절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어머니가 자녀의 정서에 대해서 놀리거나 비난해도 된다는 조롱 신념이 높을수록 어머니는 비지지적 양육행동을 하며 이는 다시 자녀의 적응적 정서조절을 억제하고 불안정 조절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녀의 정서를 진실한 것으로 보지 않고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조작된 것이라는 신념 수준이 높은 어머니는 자녀의 정서표현에 대해 지지적 반응을 억제함으로써 자녀의 적응적 정서조절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자녀의 불안정 조절을 직접적으로 이끄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자녀의 부정적인 정서 표현에 대해서 놀리거나 비난하는 것이 자녀의 행동을 바꾸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히려 자녀의 정서조절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정서를 조작

하는 말은 속인다는 의미를 가진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 반면, 속인다는 행동에는 정서조절과 자신의 정서가 상대방으로부터 어떠한 반응을 이끌어낸다는 사회적 이해를 가진다는 의미도 있어 자녀가 정서적으로 능력이 있다고 부모가 생각할 수도 있다(Beale, 2007). 그러나 조작 신념이 높은 어머니는 자녀의 정서 표현에 대해 지지적 반응을 적게 한다는 본 연구 결과로 보아, 한국 어머니들은 조작 신념을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속이는 행동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어머니가 자녀의 정서를 진지하게 수용하여 이해하려는 생각을 가지도록 교육하는 것이 자녀의 정서조절을 돕는 방법임을 알 수 있었다.

정서관련 양육행동을 통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아동의 정서조절에 영향을 주는 신념들도 있었는데, 통제 신념과 정서유동성 신념은 아동의 적응적 정서조절과 불안정 조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었다. 자녀가 자신의 정서를 조절할 수 있다는 신념과 자녀의 정서는 빠르게 변화한다는 신념이 높을수록 자녀의 적응적 정서조절은 증가하고 불안정 조절은 억제되었다. 앞서 통제 신념은 자녀의 부정적 정서 표현에 대한 처벌반응과 정적인 관련이 있었던 결과를 보아, 예상 밖의 결과로 생각될 수 있다. 이는 어머니의 정서관련 신념이 아동의 정서조절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경로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이에 관해서는 연구의 한계점을 이야기하며 논의하겠다.

어머니가 아이의 정서 사생활을 인정해주어야 한다는 신념이 높을수록 직접적으로 자녀의 불안정 조절을 증가시키는데 영향을 준 결과가 흥미로운데, 이는 우리나라 어머니의 신념의 배경이 외국의 경우처럼 아이의 자율성

이나 독립성에 대한 가치와 연관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 추후 연구에서 확인해보는 것이 필요하겠다. 아동이 스스로 감정을 개방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신념이 자율성이나 독립성에 대한 가치와 연관이 되어있을 수 있으나(Beale, 2007), 부정적 정서는 집단의 조화를 무너뜨리므로 사적으로 간직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부모(Markus & Kitayama, 1991)처럼 혹시 자녀의 감정에 대한 불편함이나 조심스러움을 의미한다면, 적절한 부모의 지도나 개입이 부족해지고 이는 다시 자녀의 정서조절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이제까지 부정정서 가치 신념과 부모지도 신념에만 중점을 두었던 정서관련 양육행동 및 아동의 결과물간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송수정, 남은영, 2013; 이지은, 2014; Gottman et al., 1996; Halberstadt et al., 2008; Nelson, Leerkes, O'Brien, Calkins, & Marcovitch, 2012; Wong et al., 2008, 2009)의 폭을 넓혀 다양한 정서발달관련 신념과의 관련성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하여 그동안 알지 못하였던 긍정정서 가치 신념, 통제 신념, 정서유동성 신념, 정서발달 가능성 신념, 자녀습득 신념, 조롱 신념, 사생활 신념, 조작 신념이 가지는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더불어 다양한 정서발달관련 신념들이 어떤 구조적 관련성을 가지고 어머니의 정서관련 양육행동과 아동의 정서조절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시도함으로써, 정서발달관련 신념이 정서관련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다시 아동의 정서조절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거나 직접적으로 정서조절에 영향을 주는 보다 다양하고 상세한 관계를 보여주었다. 매개모형 결과에 따르면, 어머니가 정서에 대한

가치를 인식하고 자녀의 정서를 어머니 자신이 지도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질수록 지지적인 양육행동을 하게 되며 이는 자녀의 정서조절에 도움이 되었다. 자녀가 정서를 통제할 수 있으며 자녀의 정서가 빠르게 변화하며 그 표현이 진실하다는 신념은 자녀의 정서조절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가 어떠한 정서발달관련 신념을 가지는 것이 지지적인 양육행동과 자녀의 건강한 정서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어, 어머니들을 교육하고 양육 어려움에 개입할 수 있는 새로운 장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를 통하여 적절한 양육행동이나 아동발달에 기여하는 근본적인 변인 중 하나가 정서발달관련 신념이라는 것을 확인한 만큼, 정서발달관련 신념에 대한 교육 및 치료적 개입에 관심을 가지고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한국 어머니의 정서발달관련 신념을 측정하는 데에 서양의 부모들을 대상으로 제작된 질문지를 사용했다는 점에서 그 한계를 가진다. 한국 어머니들에게 적합한 문항을 선별하고 요인을 확인하였지만, 원문항을 제작하고 선정하는 과정에는 참여하지 못함으로써 한국의 정서특성이 충분히 반영한 질문지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을 가진다. 따라서 추후에는 한국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정서발달관련 신념 질문지를 개발하거나 심층면접을 통하여 한국 어머니가 가지는 신념을 탐색해보으로써, 한국 어머니 고유의 정서발달관련 신념을 밝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서발달관련 신념이 양육행동을 통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자녀의 정서조절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Dunsmore와 Halberstadt(1997)는 어머니의 정서표현 및 정서조절에 대한 가치와 신념이 자녀의 정서도식에 영향을 주어 자녀가 정서표현과 정서경험을 이해하고 정서를 조절하는 데 영향을 준다고 제안하였다. 초등학교 5, 6학년생을 대상으로 한 송수정과 남은영(2013)의 연구에서 어머니 본인의 정서에 대한 상위 철학이 아동의 상위-정서 철학과 관련성을 보였으며 또한 아동의 상위-정서 철학을 매개로 어머니의 상위-정서 철학이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비록 신념과 행동이 혼합되어 있다는 상위-정서 철학이 가진 단점에도 불구하고, Dunsmore와 Halberstadt(1997)의 제안처럼 어머니의 정서발달관련 신념이 자녀의 정서발달관련 신념을 거쳐 다시 자녀의 결과물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설명해주고 있다. 따라서 자녀의 정서발달관련 신념 변인을 매개변인으로 추가하여 어머니의 정서발달관련 신념이 자녀의 정서조절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대한 정확한 경로를 밝히는 추후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부모가 가지는 정서성(emotionality), 정서조절능력, 정서표현의 양가성 같은 정서적 특성 또한 정서 사회화 과정에서 중요한 변인이다. 어머니의 정서표현과 정서표현 양가성을 연구한 배민정(2008)의 연구에서도 부모의 정서적 특성이 자녀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변인임이 증명되었다. 다양한 영역의 부모 변인들과 함께 기질적 반응성과 조절능력과 같은 아동 변인(Eisenberg et al., 1998)들을 포함하는 추후 연구를 통하여, 정서 사회화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연구를 폭넓게 확장해 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희정 (1995). 어머니가 지각한 부정적 정서에 대한 아동의 대처반응.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혜진 (2011). 부모의 정서관련 양육신념에 따른 양육행동.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배민정 (2008). 어머니의 정서표현, 정서표현에 대한 양가성, 양육태도 및 아동의 문제 행동과의 관계.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송수정, 남은영 (2013). 어머니의 상위정서철학과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 간의 관계: 아동의 상위정서철학의 매개효과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6(3), 1-17.
- 신주혜, 정윤경 (2013). 어머니의 정서관련 신념과 이에 따른 정서표현성 및 자녀의 부정정서 표현에 대한 반응.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6(3), 71-95.
- 안라리 (2005). 만 5세 남녀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 정서조절 전략. 열린 유아교육연구, 10(2), 61-81.
- 여은진 (2009). 유아와 어머니의 정서성, 어머니의 정서사회화 행동 및 유아 정서조절간의 구조 분석. 덕성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이지은 (2014). 어머니의 정서신념과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반응이 유아의 정서조절 능력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장희정, 방희정, 옥 정 (2005). 체벌에 대한 신념, 양육 스트레스가 체벌행동을 매개로 아동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양육 효능감 중재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

- 지: 발달, 18(3), 143-163.
- 정윤경, 박혜진 (2012). 한국 부모의 정서발달에 대한 신념과 이에 따른 정서관련 양육 행동.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5(2), 107-128.
- 최해연 (2012). 한국인의 대학생과 직장인이 경험하는 긍정 정서의 구조.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6(4), 73-88.
- 최혜정, 이동귀 (2015). 어머니의 정서관련 양육신념과 어머니가 지각한 유아의 정서조절의 관계에서 어머니의 정서표현의 매개 효과. 아동학회지, 36(3), 1-18.
- 허애수 (2003). 자녀의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태도 및 아동의 정서조절능력과 또래 유능성.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Beale, K. S. (2007). *The relationship between ethnicity, SES, and education on parental beliefs of manipulation, contempt, and privacy*. Doctoral Dissertation, North Carolina State University, North Carolina, USA
- Buck, R. W. (1984). *The communication of emotion*. New York: Guilford Press.
- Cervantes, C. A., & Seo, M. (2005). Korean mother's beliefs about children's emotions: An examination of parenting in a multicultural context. Symposium Conducted at the Biennial Meeting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Atlanta, GA.
- Davies, P. T., & Cummings, E. M. (1994). Marital conflict and child adjustment: an emotional security hypothesis. *Psychological Bulletin*, 116(3), 387-411.
- Denham, S. A. (1989). Maternal affect and toddlers' social-emotional competence.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59(3), 368-376.
- Denham, S. A., Blair, K. A., DeMulder, E., Levitas, J., Sawyer, K., Auerbach-Major, S., Queenan, P. (2003). Preschool emotional competence: Pathway to social competence. *Child Development*, 74, 238-256.
- Denham, S. A., Mitchell-Copeland, J., Strandberg, K., Auerbach, S., & Blair, K. (1997). Parental contributions to preschoolers' emotional competence: Direct and indirect effects. *Motivation and Emotion*, 21(1), 65-86.
- Dunn, J., Brown, J., & Beardsall, L. (1991). Family talk about feeling states and children's later understanding of others' emotions. *Developmental Psychology*, 27(3), 448-455.
- Dunsmore, J. C., & Halberstadt, A. G. (1997). How does family emotional expressiveness affect children's schemas? In K. C. Barrett (Ed.), *The communication of emotion: Current research from diverse perspectives*. San Francisco: Jossey-Bass.
- Dunsmore, J. C., Her, P., Halberstadt, A. G., & Perez-Rivera, M. B. (2009). Parents' beliefs about emotions and children's recognition of parents' emotions. *Journal of Nonverbal Behavior*, 33, 121-140.
- Dunsmore, J. C., & Karn, M. (2001). Mother's beliefs about feelings and children's emotional understanding. *Early Education & Development*, 12, 117-138.
- Eisenberg, N., Cumberland, A., & Spinrad, T. L. (1998). Parental socialization of emotion. *Psychological Inquiry*, 9(4), 241-273.
- Eisenberg, N., Fabes, R. A., & Murphy, B. C. (1996). Parents' reactions to children's negative

- emotions: Reactions to children's social competence and comforting behavior. *Child Development*, 67, 2227-2247.
- Eisenberg, N., & Morris, A. S. (2002). Children's emotion-related regulation. In R. Kail (Ed.), *Advances in child development and behavior* (Vol. 30, pp. 190-229). San Diego, CA: Amsterdam.
- Eisenberg, N., Spinrad, T. L., & Morris, A. S. (2002). Regulation, resiliency, and quality of social functioning. *Self and Identity*, 1, 121-128.
- Eisenberg, N., Valiente, C., Morris, A. S., Fabes, R. A., Cumberland, A., Reiser, M., & Losoya, S. (2003). Longitudinal relations among parental emotional expressivity, children's regulation, and quality of socioemotional functioning. *Developmental Psychology*, 39(1), 3-19.
- Fabes, R. A., Eisenberg, N., & Bernzwing, J. (1990). *The coping with children's negative emotions scale: Procedures and scoring*. unpublished manuscript, Arizona State University, Tempe, USA
- Fabes, R. A., Leonard, S. A., Kupanoff, K., & Martin, C. L. (2001). Parental coping with children's negative emotions: Relations with children's emotional and social responding. *Child Development*, 72(3), 907-920.
- Fabes, R. A., Poulin, R. E., Eisenberg, N., & Madden-Derdich, D. A. (2002). The Coping with Children's Negative Scale(CCNES): Psychometric properties and relations with children's emotional competence. *Marriage & Family Review*, 34, 285-310.
- Fredrickson, B. L. (1998). What good are positive emotions? *Review of General Psychology*, 2(3), 300-319.
- Frick, P. J., & Morris, A. S. (2004). Temperament and developmental pathways to conduct problems. *Journal of Clinical Child and Adolescent Psychology*, 33, 54-68.
- Gottman, J. M., & Katz, L. F. (1989). Effects of marital discord on young children's peer interaction and health. *Developmental Psychology*, 25(3), 373-381.
- Gottman, J. M., Katz, L., & Hooven, C. (1996). Parental meta-emotion philosophy and the emotional life of families: Theoretical models of preliminary data.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0, 243-268.
- Gottman, J. M., Katz, L., & Hooven, C. (1997). *Meta-emotion: How families communicate emotionally*. Mahwah, NJ: Erlbaum.
- Halberstadt, A. G., Denham, S. A., & Dunsmore, J. C. (2001). Affective social competence. *Social Development*, 10, 79-119.
- Halberstadt, A. G., Dunsmore, J. C., Bryant, A., Parker, A. E., Rudd, K. S. & Thompson, J., A., (2005). Parents' beliefs about emotions and children's affective social competence. Grant proposal for NICHD.
- Halberstadt, A. G., Dunsmore, J. C., Parker, A. E., Beale, K. R., Thompson, J. A., & Bryant, A., Jr. (2008). Parent's beliefs about children's emotions. [In preparation].
- Halberstadt, A. G., Thompson, J. A., Parker, A. E., & Dunsmore, J. C. (2008). Parents' emotion-related beliefs and behaviors predict children's reactions to the September 11, 2001

- terrorist attacks. *Infant and Child Development*, 17, 557-580.
- Hooven, C., Gottman, J. M., & Katz, L. (1995). Parental meta-emotion structure predicts family & child outcomes. *Cognition & Emotion*, 9(2/3), 229-264.
- Kopp, C. B. (1982). Antecedents of self-regulation: A developmental perspective. *Developmental Psychology*, 18, 199-214.
- MacKinnon, D. P., Warsi, G., & Dwyer, J. H. (1995). A stimulation study of mediated effect measures. *Multivariate Behavioral Research*, 30(1), 41-62.
- Markus, H. R., & Kitayama, S. (1991). Culture and the self: Implications for cognition, emotion, and motivation. *Psychological Review*, 98(2), 224-253
- McGillicuddy-De Lisi, A. V., & Sigel, I. E. (1995). Parental beliefs. In M. H. Bornstein, (Ed). *Handbook of Parenting. Vol. 3* (pp. 333-358). New Jersey: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Morris, A. S., Silk, J. S., Steinberg, L., Myers, S. S., & Robinson, L. R. (2007). The role of the family context in the development of emotion regulation. *Social Development*, 16(2), 361-388.
- Nelson, J. A., Leerkes, E. M., O'Brien, M., Calkins, S. D., & Marcovitch, S. (2012). African American and European American mothers' beliefs about negative emotions and emotion socialization practices. *Parenting*, 12(1), 22-41.
- Newland, R. P., & Crnic, K. A. (2011). Mother-child affect and emotion socialization processes across the late preschool period: Predictions of emerging behaviour problems. *Infant and Child Development*, 20(6), 371-388.
- Parker, A. E. (2006). Parental socialization of positive and negative emotions: Associations with children' everyday coping and display rule knowledg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North Carolina State University, North Carolina, USA.
- Ramsden, S. R., & Hubbard, J. A. (2002). Family expressiveness and parental emotion coaching: Their role in children's ER and aggression.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0, 657-667.
- Shields, A., & Cicchetti, D. (1997). Emotion regulation among school-age children: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new criterion Q-sort scale. *Developmental Psychology*, 33(6), 906-916.
- Shipman, K. L., Schneider, R., Fitzgerald, M. M., Sims, C., Swisher, I., & Edwards, A. (2007). Maternal emotion socialization in maltreating and non-maltreating families: Implications for children's ER. *Social Development*, 16, 268-285.
- Thompson, R. A. (1994). Emotion regulation: A theme in search of definition.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9(2-3), 25-52.
- Walden, T. A., & Smith, M. C. (1997). Emotion regulation. *Motivation and Emotion*, 21, 7-25.
- Wong, M. S., Diener, M. L., & Isabella, R. A. (2008). Parents' emotion related beliefs and behaviors and child grade: Associations with children's perceptions of peer competence.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29, 175-186.
- Wong, M. S., McElwain, N., & Halberstadt, A.

G. (2009). Parent, family, and child characteristics as predictors of mother-and father-reported emotion socialization practice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23*, 452-463.

1차원고접수 : 2016. 04. 11.

수정원고접수 : 2016. 05. 25.

최종게재결정 : 2016. 05. 31.

The Effects of Mothers' Emotion-related Belief about Children's Emotion on Response to Child's Negative Emotion Expression and Children's Emotion Regulation

Juhye Shin

Yoonkyung Jeong

Dept. of Psychology,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This study examined Korean mothers' emotion-related beliefs and their relationships with mother's emotion-related parenting behaviors and children's emotion-regulations. For this purpose, mothers who had a child who was 3~6 years old completed questionnaires regarding emotion development-related beliefs, the mother's coping strategies for children's negative emotion expression, and children's emotion-regulations. We found that 12 emotion-related beliefs influenced children's emotion-regulations, which were mediated by mothers' parenting behaviors. "Negative emotions are valuable", "positive emotions are valuable", "emotion fluidity" and "parents should guide" were positively related to the mothers' supportive responses and children's emotion-regulations. In contrast, "contempt", "manipulation" and "the danger of emotion" were positively related to mothers' non-supportive responses and children's emotion-negativity. Also, "mothers' supportive parenting behavior" was positively related to children's emotion-regulations and "mothers' non-supportive parenting behavior" was negatively related to children's emotion-regulations. In addition, "positive emotions are valuable", "the danger of emotion", "parents should guide", and "contempt" indirectly accounted for children's emotion-regulations, which were mediated by mothers' parenting behaviors. "Control", "emotion fluidity", "privacy", and "manipulation" directly accounted for children's emotion-regulations.

Key words : *Mother's Emotion-related Belief, Response to Child's Negative Emotion Expression, Emotion regulation*